

vol.133

# 인론 언론중재위원회 NEWS 사람

## Special News

조정중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재위원 연수 개최

## Interview


서울외신기자클럽  
이토 료지 회장

2011. July **7**



## CONTENTS

03 **이달의 주요뉴스**  
조정중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재위원 연수 개최

04  **인터뷰-서울외신기자클럽 이토 료지 회장**  
“한일 양국의 활발한 교류로 시너지 효과 기대”

06  **위원단상**  
남산이야기

07  **직원마당**  
마음을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08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후기**  
정정보도를 생각한다

09 **기고**  
엄마의 화장대 위에 담긴 행복

10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장기하와 얼굴들 ‘모질게 말하지 말라며’

11 **이런얘기 저런얘기**  
만년필

12 **위원동정**

13 **위원회 소식**

14 **위원회 통계 현황**

# 조정중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재위원 연수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중재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언론피해구제 및 조정중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권성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중재부에서 52명의 중재위원이 참석했다.

대전중재부 이승훈 중재부장(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제1주제인 「신청의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는 이론적 기준 및 관련사례 검토」의 발제를 맡은 여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전 서울제1중재부장)는 위원회에 청구된 사건 중 각하 및 기각 사례를 소개하며 각하와 기각의 법률적 개념을 설명했다.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및 관련 사례 검토」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장현우 위원(변호사, 서울제1중재부)은 손해배상제도는 정정·반론보도청구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인격권을 보호하는 독립적인 청구권으로서, 손해배상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증거조사기능을 강화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직권조정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3주제인 「정정보도문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및 관련 사례 검토」를 발표한 어경택 위원(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서울제3중재부)은 보도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사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하는 등 보도문의 형식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 위원장은 위원회의 손해배상 운용과 정정보도문 등의 게재형식에 전체 중재위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향후 문제의식을 갖고 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중재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 “한일 양국의 활발한 교류로 시너지 효과 기대”



서울외신기자클럽

**이토 료지** 회장

(現)NHK 서울지국장

# Interview

지난 2월 NHK 서울지국의 이토 료지 지국장이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서울외신기자클럽 최초의 일본인 회장이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250 명이 넘는 회원수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회장을 배출하지 못했으나, 이토 료지 지국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가깝고도 먼 나라’인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작은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두 번째 한국 주재원 생활이라는 이토 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화합을 강조하며 유창한 한국어로 인터뷰에 응했다.

**Q.** 서울외신기자클럽의 연혁과 기능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1956년 설립 이후, 서울외신기자클럽은 한국의 모습을 줄곧 담아 오고 있고 1985년 프레젠테이션 이전 이후 연평도 사건 등 한국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 동안 외신기자들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담은 「한국의 목격자들 (Korea Witness: 135 Year of War, Crisis and News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Q.** 한국의 어떤 점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한일간 FTA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남북관계 등 국가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온 외신기자들은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 되었습니다. 저 역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주재원으로 근무했고, 2009년부터 지국장으로 다시 오게 됐죠. NHK뿐만 아니라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의 지국장도 두 번째 근무자들입니다.

**Q.**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언론보도가 일상화되었고 이로 인한 명예훼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일본의 경우는 어떤지요?

일본은 인터넷 사업을 국가 시책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신문으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야후 재팬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볼 수는 있지만, 언론사 뉴스를 그대로 전 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있어서는 한국이 선도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한국의 상황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2channel> 같은 사이트에서 기사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다가 욕설이 오가서 문제가 된 경우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앞으로 일본이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Q.** 일본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가 있는지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에 의한 언론 통제를 경험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대신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NHK와 민간방송연맹이 출자해 설립한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 나, 각 신문사에 설치된 '제3자위원회' 등의 자율기관이 그 예입니다. 물론 방송사가 BPO의 결정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시청자가 BPO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해서 일각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해서 피해를 구제하는 것에 저항감을 갖고 있는 일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제3자 기관'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Q.** 이번 대지진과 관련해 NHK의 보도 매뉴얼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NHK 재난보도 매뉴얼에는 재난보도시 기자들이 숙지해야 할 방송 기술적인 설명과 재난지역 취재시 겪었던 시행착오 사례,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도1의 지진에는 로컬방송에서 보도, 진도3 이상일 때에는 전국방송과 아나운서 멘트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죠.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뉴얼에는 직원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외신기자의 시각으로 본 한국 언론은 어떤 모습인지요?

일본에서 사용하는 '언론'이라는 말에는 '자기주장을 강하게 펼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이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지요. 반면 한국에서는 기자를 '언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여론을 이끌어 나가고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지요. 일본기자들은 주관적인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고 객관적 보도를 전달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기자가 정치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한국에서는 기자가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한국 언론은 일본 언론에 비해 정치와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는 일본 언론에는 없는 힘이 있지요. 기자로서 취재 대상과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방송이 일본 방송처럼 보도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Q.**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이 '일본은 과거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기류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이 일본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어떤 '스테레오 타입'이 있었습디다. 독도, 역사교과서 등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을 주로 다뤘죠. 그러나 요즘은 점차 객관적 관점의 보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동북부 대지진에서 보여준 한국 언론의 모습입니다. 1995년에도 고베에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한국에서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고 관심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언론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결과 한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1998년 한국에서 일본문화가 개방되기 시작했을 때 일본에서는 일본의 문화가 한국에서 인정받았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이것이 한류의 시초가 되어 일본에서의 한국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졌죠. 양국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정리 / 남승균(홍보팀)
- 사진 / 박경미(홍보팀)



박 종 순 위원

서울제3중재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남산 이야기



남산의 옛 이름은 목멱산(木覓山)이다. 조선 시대 때 남산 꼭대기, 그러니까 지금의 팔각정 자리에 산신을 모시는 목멱신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목멱신사는 국사당이라고도 했는데 남산 팔각정에 가면 국사당지(國師堂址)라는 표지석이 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이지만 그 옛날 남산을 목멱산이라고 불렀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조선을 세운 태조가 이(李)씨이므로 이씨 외에 다른 백성들은 감히 남산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목멱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하긴 목멱이라는 한자를 가만히 뜯어보면 이(李)자 안에 있는 나무 목(木)자에 아니 불(不)자와 불 견(見)자가 합쳐진 멱(覓)자로 이루어졌으니 그럴듯해 보인다.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남산을 쉬는 놀이터로서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목멱상화(木覓賞花), 즉 남산의 꽃구경을 서울의 10가지 구경거리 중 하나로 손꼽았다. 한편 남산을 잠두봉(蠶頭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강남 쪽에서 남산을 바라보면 마치 누에가 머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회현동 쪽 남산 전망대에 가면 「잠두봉 포토 아일랜드」라는 안내판이 있다. 우리 집은 남산 자락에 있다. 그래서 나는 자주 남산에 오른다. 사람들은 남산하면 케이블카와 서울타워를 생각하지만 그것 말고도 남산 곳곳에는 여러 가지 보고 배울 것이 있다.

먼저 대한국인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있다. 이 동상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앞에 있는데 안중근 의사는 오른손에 한자로 대한독립이라는 글자가 적힌 태극기를 펼쳐 들고 당당하게 서 있다. 동상 뒤쪽 아래에는 안중근 의사가 지은 「장부가」가 새겨져 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의거를 앞두고 비분강개한 마음을 이길 길 없어 그 심정을 한글과 한문으로 이 장부기를 썼다고 한다. 장부기라는 제목은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어 그 뜻이 크도다 ....만세 만세 대한독립이로다’는 내용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상 옆 제일 큰 돌에는 ‘見利思義 見危授命’, 즉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함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는 안중근 의사의 육필이 새겨져 있다. 이 글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쓴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동상과 글을 보고 있으니 내 마음과 자세가 숙연해진다.

다음으로 남산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의 동상이 있다. 이 동상들은 모두 1970년에 세워졌다. 나는 정약용 선생하면 목민심서의 청렴이 생각한다. 정약용 선생은 청렴을 수령

된 자의 본연의 의무이고 모든 선정의 원천이 되며 모든 덕행의 근본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목민관이 청렴하지 못하면 백성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며 자신의 인격을 파멸로 몰아넣는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퇴계 이황 선생의 동상이 있다. 동상 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웅숭깊고 정밀한 것은 선생의 학문이요 분명하고 간곡한 것은 선생의 가르침이다. 칠십 평생 마지막까지 자기의 학설 속의 잘못을 고백하고 고치기에 용감하였다. 선생은 동방의 빛이요 길이 우러러 본받을 스승이시다.”

옛 선현의 동상을 보고 있노라니 왜 우리가 선현의 글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 다음으로 남산도서관 옆에는 소월시비가 있다. 시비에는 ‘산에는 꽃이 피네’로 시작하여 ‘산에는 꽃이 지네’로 끝나는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가 새겨져 있다. 김소월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족 시인이므로 우리 역사와 관계가 깊은 남산 자락에 그의 시비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월시비 옆으로 나 있는 나무계단과 돌계단을 거쳐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넓은 광장이 나온다. 광장 끝에는 서울의 지리적 중심점이 있다. 옛날에는 경복궁이 서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남산이 말 그대로 남산이었지만 지금의 남산은 어엿한 서울특별시의 중심점이다. 중심점 옆 광장 구석에는 85타임캡슐이 있다. 이 타임캡슐은 1985년 10월 17일에 묻힌 것인데, 그 안에는 1985년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과 환경을 보여주는 466점의 물건과 기록이 담겨져 있다. 이 타임캡슐은 500년 후인 2485년에 연다고 한다. 후손들에게 좋은 역사적 유물이 될 것이다.

남산에 있는 몇몇 기념물을 소개했는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기념물에 언론사가 참여했다 점이다. 정약용 선생과 이황 선생의 동상은 서울신문사가 세웠고 소월시비는 한국일보사가 한국신시 60년을 기념해 세웠다. 또 85타임캡슐은 중앙일보사가 제작했다. 언론사가 위와 같은 역사적 기념물에 참여했다는 것은 의의가 크다. 왜냐하면 언론은 사회교육과 문화전승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소 견강부회한 주장이겠지만 언론사가 이런 기능을 유지하고 발휘한다면 아마도 국민은 언론사를 공익의 대변자로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언론사가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 마음을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김 일 경  
前 대구사무소장

경주시청, 문화공보부, 공보처,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는 31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선배들의 퇴임을 수없이 지켜보았다. 그때마다 나는 퇴임이란 먼 훗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어느덧 나에게도 퇴임일이 다가왔다. 받아 놓은 일자는 빨리 온다고 했던가. '2011년 6월 30일 정년퇴임' 이라고 못박고 기다리니 하루하루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다.

2009년 1월 중재위원회 대구사무소장으로 부임하면서 퇴임 이후를 준비하게 되었다. 대구사무소를 관장하는 현직에 있으면서 퇴임 이후의 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업 훈련은 퇴임 직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다행히 6월 한 달간 다른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아내가 대구 근교 경산에서 운영하는 '사랑지기 어르신마을 노인전문 요양원'에서 관리원으로 일해 보았다. 운전원에서 건물 관리, 물품 수급, 행사 진행, 사회복지 행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해보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보수도 생각보다 적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의 실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좋았다고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퇴임식은 소박했지만 직원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퇴임식의 주인공으로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만감이 교차했다. "김소장이 나가면서 일자리를 부탁할까봐 은근히 걱정했는데 일할 데가 있어서 다행이다"는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에 인생 2모작 출발시점에 한층 더 용기가 솟았다. 감사패, 기념품, 꽃다발 증정은 어디에나 있는 일이지만 이미경 팀장이 직원들의 격려 글을 소개할 때는 코끝이 찡했다. 조사팀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최은진 씨의 송별사 때에는 충분히 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신세대다운 발랄한 송별사에 오히려 크게 웃고 말았다.

내게 위원회는 크고 넉넉한 우산이었다. 모진 비바람과 작열하는 태양열을 막아 주는 훌륭한 안식처였다. 허나 돌이켜보니 위원회 근무했던 16년간 이렇다 할 업적 없이 녹만 축낸 것 같아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조사연구팀장 시절 지방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준비하며 전국을 누볐던 일, 총무팀장 시절 현재의 중재위원회의 구도를 짜면서 좋은 위치의 임대공간과 신청인이 기억하기 쉬운 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던 일이 그나마 기억에 남는다.

특히 작년 9월에 아내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동승자가 사망하는 불운을 겪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회 분들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다. 역경을 이겨내고 심신을 회복해 노인복지에 헌신하고 있는 아내는 건강이 회복되어 퇴임식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 직원들도 모두 반겨 주었다. 1996년 7월 입사 때는 혼자였지만 둘이서 걸어 나가니 외롭지 않았다.

위원회 근무기간 중 많은 분들로부터 받기만 하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퇴임이 졸업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도전이라면 심기일전해 다시 열심히 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물리적 시간이 다 되어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영원히 중재위원회에 남아 있을 것이다. 퇴임식을 거쳐 간 선배의 소식을 몰라 궁금해 여기저기 알아보도록 가끔 후배들도 찾아보고 인정을 나누고 싶다. 앞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권성 위원장님과 전국의 중재위원님, 김용주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린다. 멀리 있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지역사무소장님, 간사들께도 감사드리며 중재위원회와 함께 한 16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려 한다.

# 정정보도를 생각한다

이재범  
교육팀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각급 법원이 2010년 한 해 동안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 판결에 대한 분석과 주요 판례를 수록한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정정보도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바란다)

작년에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 보도문을 명한 판결은 20건이었다. 이러한 판결 중에는 복수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도 있으므로 이를 매체별로 분류를 하면 31건이다. 이 31건에 대한 보도제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문' 18건, '정정 및 반론보도문' 5건, '반론보도문' 1건, '...에 대한 정정보도문' 4건,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1건, '바로잡습니다' 1건, '기타' 1건 이다. 참고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은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각

각 명한 판결이고, '기타'는 제목을 '알림'으로 한 경우였다. 즉, 보도문 제목을 단순히 정정이나 반론과 같은 무미건조한 제목으로 한 건수가 25건(80.6%)이나 되었으며, 이것보다 그 효과가 더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바로잡습니다'와 '알림'이 각각 1건이었다.

정정보도도 속성상 뉴스라고 할 수 있으며, 뉴스란 소비자에게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에 정정보도의 제목으로 자주 이용된 '정정보도문' 형식은 스스로 흥미 없는 기사임을 드러내면서, 그 내용이 딱딱하고 어려워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는 뉴스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에 대한 정정보도문'과 같이 내용을 유추할 수 있고 눈길을 끄는 제목을 일부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다면 정정보도를 일반적인 기사 내지 속보성 보도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다. 가령 현직 경찰관이 택시 기사를 살해했다는 원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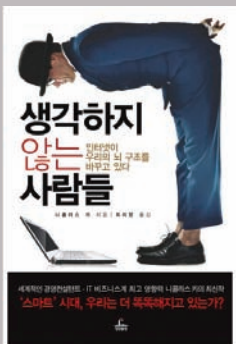
에 대한 정정보도의 예를 들어보자. 기존 관행대로라면 제목이 단순히 '정정보도문'으로 될 것이다. 두 번째 안에 따르면 '경찰 택시기사 살해 관련 정정보도문'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안에 따르면 '경찰, 택시기사 살해 누명 벗다', '택시기사,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등 다양한 제목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사의 내용도 훨씬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다. 뉴스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언론사로서도 잘못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형식이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은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와 법원은 정정보도에 대한 위치나 크기를 상향시키는 것과 함께, 정정보도의 형식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달의  
책

##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니콜라스 카 지음 | 청림출판 | 361페이지



IT 전문가이자 저명한 칼럼리스트인 니콜라스 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The Shallows)』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종속된 이후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글을 쓰는 방식과 읽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사회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에서 역설한다.

저자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무분별한 사용이 얇고 가벼운 지식을 양산했다”고 언급하면서, 지식을 서치하고 스킵하고 스캐닝하며 인터넷이 주는 달콤함에 빠진 사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예리하게 지적한다.

동시에 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많은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는 지적 능력은 증가하지만 숙고하거나 사색하는 능력, 주의 깊게 추론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상상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염려한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문명의 이기로 받아들여진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지, 나아가 개인의 지식과 사고능력을 키우며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저자의 문제제기가 신선하게 다가온다.

# 엄마의 화장대 위에 담긴 행복

## 새해 아침 가족사진 찍기의 추억

어릴 적 우리 집은 신경과 구정을 다 쇠었다. 당시 형제들의 불만은 세배는 두 번 하는데 왜 세배 돈은 한번만 지급되는가에 있었다. 아버지는 이중과세는 잘못이라며 당시엔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그렇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난 그 부분에서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세배는 왜 두 번씩 해야 했는지 말이다.

그렇게 새해가 되어 세배를 드리고 떡국으로 아침식사가 끝나면 늘 엄마는 카메라를 챙겨 오라고 하셨다. 작은 카메라를 적당한 크기의 삼각대에 받쳐서 가족사진을 찍는 건 새해가 되면 늘 행해지던 집안의 전통이었다.

그래도 이걸 제법 재미있었다. 카메라를 제일 잘 다루는 건 항상 나였고 그 귀한 카메라(아마 독일제 '롤라이 35'라는 작은 카메라였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은 이른바 클래식카메라란 이름으로 제법 비싼 값을 받고 있다)를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었던 몇 번 안 되는 기회였다.

마루에 온 가족이 모여 각자의 자리에 서서 저마다 사진을 찍기 위한 포즈를 취한다.

찰칵! 재밌는 것은 제일 처음 찍힌 사진이다. 첫 컷은 언제나 가족들의 표정이 엄숙하고 비장하다는 점이다. 무슨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표정하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그렇지만 우스개로 사진발이라고 하지 않는가. 사진은 찍으면 찍을수록 좋아진다. 찍는 나도 갈수록 요령이 생겼다. 셀프타이머를 작동하고 자리로 돌아가다 확하고 자빠지는, 의도되지 않은 슬랩스틱에 까르르 터지는 가족들의 웃음들!! 가족들의 표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생생한 웃는 표정의 가족사진은 내게 사진이 가진 역할과 가치에 대해 새롭게 눈뜨게 해줬다. 해마다 가족사진을 찍으며 나는 진짜 좋은 사진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차츰 알게 됐다.

## 좋은 사진 찍고 싶다면 사랑하는 가족부터

좋은 사진이란 무엇일까? 흔히 유명 사진가들은 좋은 사진을 찍는 다며 아프리카나 유럽 등 이국적 풍광을 가진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곤 한다. 물론 이국적인 것은 사람들의 감각과 감정을 평범한 일상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매력적이다. 다른 나라의 기후, 빛, 풍광, 사람들의 표정 등에서 훨씬 풍부한 색감, 아름다운 구성, 재미있는 삶의 단면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좋은 사진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상의 행복한 모습을 카메라 렌즈 안에 담을 수 있는 건 오롯이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갓 깨어난 누나의 얼굴 부은

민 원 기  
前데일리 서프라이즈 기자  
前경기도청 홍보기획관실  
프리랜서 사진가



모습이나 속옷만 입은 아버지의 훌가분한 모습을 두고두고 가족들의 이야기 거리가 될 것이다. 행복한 순간이 담긴 사진을 보며 기뻐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흐뭇하다.

하루에도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수많은 사진들이 노출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줄 테지만 단언컨대 가족사진만큼 우리에게 오랜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늘 새해 가족사진 촬영이 끝나면 엄마의 화장대위엔 활짝 웃는 새 가족사진 한 장이 자그만 한 액자에 끼워져 올라와 엄마를 미소 짓게 했다.

지금 엄마는 아프셔서 예전처럼 가족사진을 찍는 게 어려워 졌다. 가족들도 다들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어 졌다. 늘 엄마의 화장대위 늘 활짝 웃던 예전의 나, 예전의 가족들이 눈물 나게 그립다. 이번 휴가엔 온 가족이 다 모여 가족사진 한 장 찍어보는 건 어떨까? 사랑스런 가족의 모습을 가장 잘 찍을 수 있는 건 당신이다.



"아니 뭘 보세요?"  
손녀 녀석의 그걸 확인하고픈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 녀석의 저항 없는 항변.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웃기다. 가까운 가족들이기에 이런 재미있는 사진 찍기가 가능하다. 사진은 글쓴이의 가족.



## 장기하와 얼굴들 '모질게 말하지 말라며'

이일환(음악방송 Satio PD)

“성음은 호랭이가 싹 물어가 버리고, 길하고 장단은 꼭 맞소.” 오랫동안 국악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백대웅 선생이 명창들을 만나서 판 소리를 채보\*한 후에, 그분들 앞에서 직접 부르면서 채보가 맞느냐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악보상의 멜로디와 장단은 틀린 데가 없지만 백대웅 선생이 부른 소리는 음색이라고 부를만한 것이 없어 판소리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도대체 호랭이는 성음(음색)을 물고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운드,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의도되어 만들어진 ‘소리’다. 예를 들면 가사도 우리에게 깊은 감흥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음악적인 감흥이라고 말하진 않는다. 아무리 문학적인 가사라고 해도 소리와 어우러질 때만이 음악적인 감흥을 줄 수 있다. 소리는 높이, 길이, 세기 등과 같은 여러 요소로 구성된다. 음의 높이는 Hz(헤르츠)로 표시되고, 길이는 sec(초)로 표시되고, 세기는 db(데시벨)로 표시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종종 호랭이가 물어가 버린다는 ‘음색’이다. 음색은 기보 상의 단위가 없다. 음색은 음의 높이, 세기, 길이 같은 여러 요소가 얽혀 만들어지는 훨씬 복잡한 현상이고 음악을 맵시 있게 만들어준다. 같은 악기로 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음색을 다르게 하면 감흥도 달라진다. 음색은 악보에 기록되지 않지만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음악에 있어서도 음색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 왔는데 최근 나온 장기하와 얼굴들의 두 번째 앨범이 좋은 예이다.

〈싸구려 커피〉와 〈달이 차오른다〉 등으로 스타가 된 장기하와 얼굴들은 가사나 음악 외적인 퍼포먼스로 큰 주목을 받았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패러디할 정도로 재미있는 퍼포먼스는 이들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들은 재미있어 하면서도 음악적으로는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번 앨범은 이런 의구심을 보기 좋게 되받아친다. 온전하게 음악만으로도 장기하와 얼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밴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도자료에는 이번 앨범이 “한국 대중음악의 오래된 미래”라고 적혀

있다. 이들의 음악이 신중현, 산울림, 송골매 등으로 대변되는 6,70년대 음악의 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과연 그렇다. 〈모질게 말하지 말라며〉는 산울림, 〈우리 지금 만나〉는 신중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곡들이다. 산울림, 신중현, 송골매를 좋아했던 중장년층이라도 단번에 좋아할만한 음악이다. 물론 비틀즈나 도어스 같은 밴드들의 영향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음악적 레퍼런스의 분석이 아니라 결과물의 완성도와 참신함이다. 단연컨대 장기하와 얼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의 앨범 반열에 오를만하다.

이 음반은 고도로 통제된 사운드를 들려준다. 어느 곡에서도 소리들이 잡다하게 나열되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다. 이처럼 통제된 사운드가 악기별로 따로 녹음한 것이 아니라 합주를 통한 녹음이라는 점도 놀랍다(이들의 연습량과 노력을 기능해볼 수 있다). 가장 멋진 것은 모든 소리들이 자기 음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간을 뚫고 등장하는 웅골찬 기타나 키보드의 사운드는 ‘이런 소리가 아니면 안된다’는 기개로 제공된 듯하다. 기교를 뽐내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연주되는 절제된 편곡도 훌륭하다. 리프나 프레이즈 하나 하나를 떼놓고 봐도 매력적이고,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음악 전체를 봐도 즐겁다. 믹싱도 좋아서 소리들이 서로 간섭해서 사운드를 잡아먹어 버리는 일도 없다. 퍼즈, 리버브 등 다양한 이펙터로 제공된 사운드에서 록음악의 오래된 아날로그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한마디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음반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오랫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레코딩의 매력과 중요성을 제대로 구현해낸 음반이다. 이런 성취가 하세가와 요헤이(한국명 김양평)라는 일본 뮤지션의 도움과 감독으로 가능했다는 점도 언급해야겠다. 신중현과 산울림에 감화되어 15년이 넘도록 한국 음악계에서 헌신하고 있는 하세가와 요헤이는 10년 전에 신중현으로부터 ‘진짜 기타리스트’라는 찬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음반은 ‘오래된 한류’가 빛어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채보 : 곡조를 악보로 만드는 것을 말함



장기하와 얼굴들 2집



# 만년필

남승균  
홍보팀

1883년 뉴욕, 루이스 E. 워터맨은 중요한 보험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서명 직전에 깃털로 만든 펜에서 흘러내린 잉크가 계약서에 떨어졌고,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긴 고객은 결국 보험 계약을 거부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워터맨은 모세관현상을 이용한 '워터맨 레굴러' 라는 최초의 만년필을 만들게 된다.

장시간의 필기를 가능케 한 만년필은 20세기 초의 스마트폰이었다. 당시 산업기술이 집약된 최첨단의 상품이었으며, 20세기 세계사의 훌륭한 조연이기도 했다. 1919년 베르사유조약 비준에는 워터맨이 사용됐고, 한때 졸업선물의 대명사였던 파커의 레오폴드 만년필은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선언하는 아이젠하워와 함께 했다. 그런가하면 고호가 애용했던 250년 역사의 파버카스텔의 기로체는 유럽연합의 정치통합 비준안을 완성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제 크로스 만년필을 사용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도 크로스 만년필 마니아라고 한다) 그밖에도 쉐퍼, 오로라, 펠리컨 등 기라성 같은 브랜드들이 만년필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는데, 그중에서도 필기구 마니아의 가슴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화이트스타'와 '4810'으로 상징되는 몽블랑(MontBlanc)이다.

몽블랑 역시 세계사의 조연으로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 중 백미는 1990년 10월 3일, 몽블랑의 영원한 클래식 '마이스터스틱(Meisterstück) 149'가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 동독의 메지에르 총리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함께 한 것이다. 몽블랑은 우리나라와도 모종(?)의 관련이 있다. 지난 1997년 임창열 부총

리가 IMF 구제금융 신청서에 몽블랑으로 서명한 것을 두고 비난이 일자, 2001년 IMF 차입금 최종 상환시에는 한국은행 전철환 총재가 국산인 아피스 펜으로 서명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국가 간의 조약에는 만년필이 사용되는데, 외교통상부도 몽블랑 만년필 두 자루를 상비하고 있다고 한다.

노트북이 등장하기 전까지 만년필은 언론과 기자의 상징이기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2007년까지 만년필촉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해왔다. 지난 1세기동안 만년필이 신뢰와 명예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괴테는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마음으로 사람을 부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만년필에 잉크를 채워 넣고 펜촉에 잉크가 충분히 배어나오길 기다리며 한 자의 글씨, 한 줄의 문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비결은 아닐까.

지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CI도 바뀌었고 만년필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도 찾아보기 어렵다. 펜으로 상징되는 아날로그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지금 누구든지 쉽게 자신을 표현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고민없이 인터넷에 던져진 말과 글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도 사실이다. 다른 이들과 만나게 될 자신의 언어를 다듬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마음이 분주한 이들에게는 사치로 여겨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옳은 물은 'Ctrl+Z'로 되담을 수 없으니, 이런 만년필의 여유가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CARTOON

# COMMISSIONERS



▶ **충북중재부 신임 중재위원 위촉**

신승현 위원(충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지난 6월 16일 충북 중재부 중재위원으로 위촉됐다. 신 위원은 현재 법무법인 청풍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34회, 사법연수원 24기를 거쳐 법조계에 입문했다.



▶ **한국방송학회, '스마트 시대의 지상파 프로그램' 토론회 참석**

김수정 위원(대전중재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교수)은 6월 3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스마트 시대의 지상파 프로그램: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원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 **서울변호사협회, 국립 현충원 참배**

박중순 위원(서울제3중재부, 변호사)은 서울변호사협회 제2부회장으로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자 서울변협 회원들과 함께 6월 6일 국립 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 **'한국방송의 이해' 출간**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교수)은 방송환경에 대한 기초지식에서부터 최신미디어 유형까지 아우른 '한국방송의 이해'를 출간했다. 또 한 위원은 6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방송광고판매제도 개편에 따른 중소방송 지원방향' 공청회의의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필진 참여**

손영준 위원(서울제3중재부, 국민대 언론정보학과교수)은 한국일보 칼럼 <아침을 열며>의 새로운 필진으로 참여한다. 손 위원은 지난 6월 14일 「'언론의 혼란'과 '사회의 혼란'」이란 제목으로 첫 칼럼을 게재했다.



▶ **강원언론학회, '종합편성채널 출범과 지역토론' 토론회 개최**

강원언론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관열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교수)은 6월 2일 강원대 서암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종합편성채널 출범과 지역언론' 토론회를 개최했다.



▶ **동국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학술회의 개최**

장하용 위원(서울제6중재부, 동국대 신문방송학과교수)은 6월 29일 동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을 맡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 전개와 방향'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조화와 소통 다문화 사회 국제세미나' 개최**

박경숙 위원(제주중재부, 제주대 언론홍보학과교수)은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을 맡아 5월 30일 제주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조화와 소통의 다문화사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 **'중편 출범 이후 지역케이블TV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발제**

김덕우 위원(광주중재부, 호남대 신문방송학과교수)은 6월 10일 광주전남언론학회와 호남언론학회가 주최한 '중편 출범 이후 지역케이블TV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현황과 규제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 **경기중재부 중경회 모임 개최**

경기중재부 전현직 중재위원모임인 중경회는 지난 6월 4일 1박 2일간 제부도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주대 김수근 명예교수를 비롯한 7인의 전현직 중재위원이 참석했으며,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김광옥 교수의 '세종과 정조' 및 '역사와 종교'에 관한 발표에 대해 회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방문



권성 위원장을 비롯한 중재위원 23명은 지난 6월 25일 6·25전쟁 61주년을 맞이해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권성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의 비극을 잊는다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며,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천안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 홍보동영상 제작



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새로운 홍보영상을 선보였다. 3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된 이번 영상은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가 우연히 찍힌 사진으로 인해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되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소재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피해구제 절차를 자연스럽게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위원회 절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피해구제보도문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가 6월 14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소위원회는 7개 서울중재부의 언론인 출신 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되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정학철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 분쟁조정 효율적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피해구제보도문의 효과에 대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비교분석한 뒤 적절한 피해구제보도 방향을 제시하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면담을 제안할 계획이다.

## 「언론중재」 여름호(제119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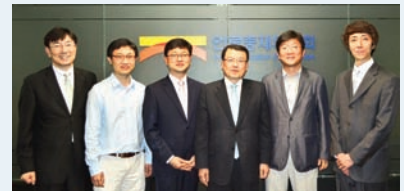
위원회는 6월 30일 계간지 「언론중재」 여름호를 발간했다.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과거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 현황과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 등이 수록되었으며, 연구논문으로 '법원판결과 언론환경의 변화'와 제주지역 토론회 발표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상반기 중재위원 업무회의 개최



권성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중재부 중재위원 26명은 지난 6월 13일 프레젠테이션 6층 회의실에서 상반기 업무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 및 피해구제보도문 실효성 제고 방안, 손해배상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5대 포털사와 업무협약 체결



(사진 왼쪽부터) 언론중재위 권우동 심리본부장, 네이트 김중훈 포털사이트 본부장, 네이버 김광준 부사장, 언론중재위 김용주 사무총장, 다음 이병선 기업커뮤니케이션 본부장, 파란 강인모 사업협력실장

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네이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등 5대 포털사와 언론조정사건의 중재 전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정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포털사들은 매번 심리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서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중재절차로 전환하게 되면 한층 신속하고 수월한 사건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진행 경과에 따라 앞으로 언론사들과의 업무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 2010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6월 30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2010년 선고한 언론관련 민사판결의 소송 형태와 판결경향 등을 분석한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언론관련 민사소송 제기현황, 손해배상청구액 등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초상권 훼손 사례 등 총 43개 판결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집체 연수



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1박 2일 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 연수원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집체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프로농구팀 삼성 썬더스 안준호 전 감독의 스포츠리더십 강연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체육활동을 통해 직원간의 친목을 다졌다.

# 2011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는...



## ● 조정·중재신청 처리 현황

위원회는 6월까지 모두 1,058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329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56건(동의 37건, 이의 16건, 계속 3건), 조정불성립결정 112건, 기각 14건, 각하 4건, 취하 422건(297건), 계류 121건이며, 피해구제율은 72.4%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3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298건, 신문 290건, 방송 90건, 뉴스통신 39건, 잡지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6월까지 58건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25건, 반론청구 21건, 추후청구 12건으로 나타났다.

### 조정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	청구명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 해 구제율 (%)	
			조 성 성 립	동 의	이 의	계 속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1~6월	정 정	475	159	21	9	2	52	6	0	158(97)	68	69.4
	반 론	73	29	3	0	0	10	2	0	14(8)	15	71.4
	추 후	93	20	1	1	0	6	0	1	61(54)	3	84.3
	손 배	417	121	12	6	1	44	6	3	189(138)	35	72.8
합 계		1,058	329	37	16	3	112	14	4	422(297)	121	72.4

### 중재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	청구명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중재 결정	중재화해 결정	기 각	계 류
1~6월	정 정	25	25	0	0	0
	반 론	21	21	0	0	0
	추 후	12	12	0	0	0
	손 배	0	0	0	0	0
합 계		58	58	0	0	0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피해구제된 건수/조정건수

## ●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6월 27일 6차 회의를 열어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41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관련보도 20건, 피의자 신원공개 17건, 마약 용량·용법 등 공개, 사생활 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범죄 묘사 각 1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31건, 일간지 5건, 뉴스통신 3건, 주간지 2건이다.

## ● 상담 현황

위원회는 6월 한 달 동안 238건의 상담(중복상담 포함)을 처리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상담 예정 24건, 타기관 안내 10건, 법적절차 안내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별로는 일간신문에 대한 상담 건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과 인터넷신문이 각 46건, 인터넷뉴스서비스 21건, 주간신문 19건, 뉴스통신 5건, 잡지 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 교육 현황

위원회는 2011년 6월말 현재 69건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교육연수기관 21회, 언론사 19회, 인턴십 프로그램 9회, 지자체 6회, 대학 5회, 공·사기업 3회, 법무 수습교육 1회, 기타 5회 등이다.



# 위원회 소개

##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 신청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 신청절차

### 1. 신청기간

조정·중재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2.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신청방법

- 언론중재아이넷(<http://people.pac.or.kr>)을 방문하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과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신 경우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 02)397-3000, 3010, 3100, 3110  
e-mail : [counsel@pac.or.kr](mailto:counsel@pac.or.kr)  
홈페이지 : [www.pac.or.kr](http://www.pac.or.kr)  
트위터 : [www.twitter.com/pac\\_news](http://www.twitter.com/pac_news)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잘못된 언론보도는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신문·방송은 물론, 이제는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정·중재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e-mail,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개정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